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17.8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 태풍 한방에... 전기 모자라 아우성치는
‘탈원전 대만’ ” (8.11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대만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소비가 늘면서 한때 전력에 비율은 1~2% 진입
- 태풍에 송전탑이 넘어진 것만으로,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위기를 맞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다수의 원전을 일정지역에 밀집하여 운용하는 경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대용량 송전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송전선로 파괴에 취약해질 수 있고, 그 영향도 더 커짐
- 또한,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가동중인 원전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, 향후 60년간 서서히 진행될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(044-203-5320)